

“포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공사 개통식에서 밝혀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공사 개통식이 12월4일 오전9시30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교차로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장원 포천시장, 이주석, 이우형 경기도의원, 이종효 포천시의회 의장과 시민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통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540년 된 광릉숲을 보존하기 위해 국비 677억원, 도비 205억원 등 882억원을 들여 6년만에 광릉숲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온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로 지정돼 정된 광릉숲을 보호하기 위해 광릉숲 우회도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도로 신설 등 교통발달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된 광릉숲 우회도로는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내촌면 진북리 구간 7.86km, 도로폭 18.5m 4차로 규모이며 사업비는 88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02년6월 27일 착공해 12월4일 개통식을 갖게 되었다.

광릉숲 우회도로 개통으로 광릉숲 주변의 차량증가에 의한 매년·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 경기북부권 횡축 교통망 형성,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공사 개통식이 12월4일 오전9시30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교차로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서장원 포천시장, 이주석, 이우형 경기도의원, 이종효 포천시의회 의장과 시민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개통된 광릉숲 우회도로가 시작되는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부인터사거리로 고가화, 지하차도로 설계하지 않아 1일 5만여대가 통행하는 43번 국도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편, 광릉숲 우회도로 건설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주)유신코퍼레이션이 감리단으로 참여했으며 시공사로는 쌍용건설(주), (주)효성, 한동건설(주), 선암건설산업(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소설 작가 이해조 문학기념 특강

문학과지성사 공동대표 홍정선 교수 초청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상임대표 홍을표)는 12월15일 오후 4시 포천시 포천중문의과대학교 세미나실에서 동농 이해조 문학 기념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는 2006년10월25일 창립하여 이해조 서거 79주년 및 80주년 추도식과 문학세미나를 거행하는 등 이해조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해조는 인근 의정부의 '천상병 문화제'와 함께 경기북부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러한 행사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홍을표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이번 행사는 포천이 낳은 근대소설의 개척자 이해조의 친일누명과 관련한 의혹을 명백히 밝혀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이해조 문학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신소설의 진정한 개척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단체 및 개인봉사자간 정보교류의 장

2008 포천시 자원봉사 대축제 300여명

포천시는 12월9일 오후2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2008 포천시 자원봉사 대축제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자원봉사활동 동영상 상영과 자원봉사우수 단체 및 유공자 시상, 자원봉사활동 시간 최다부분 인증서 수여, 대회사, 축하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는 축하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로 단체 및 개인봉사자들 간에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날 수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4/4분기 경기도지사상 ▶이운승(영중면 자율방범대) □제10회 경기도자원봉사대회 ▶봉사상 경기도지사상-포천의제21실천협

의회 ▶장려상-경기도의회의장상-경복레오클럽 □포천시장상 ▶극단한내 ▶대한적십자포천시지회(의회)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포천시지부 ▶한화리조트(주)포천지점 ▶포천시민안전봉사대 ▶김덕수 ▶서일욱 ▶송명순 ▶안운빈 ▶이수원 ▶이종해 ▶임사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는 축하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12월9일 오후2시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2008 포천시자원봉사 대축제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추천!...한마당 이야기

허리케인을 피하는 법

미국 남부 플로리다 지역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한 텔레비전 뉴스 보도팀이 그 지역을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페허가 된 동네를 촬영하고 있을 때, 말쑥한 집 한 채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리포터는 앞마당을 청소하고 있는, 집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떻게 이 집만 멀쩡하죠? 어떻게 허리케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집 주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플로리다 건축 규정에 따라 지었어요. 규정에 두께 2인치에, 너비 6인치인 지붕 트러스를 쓰라고, 나와 있어서 그대로 했지요. 규정대로 해야 허리케인을 견딜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은 모양이네요. 살다보면, 우리 인생에도 허리케인 같은 강풍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이 때론 답답하고 느끼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세상은 아름다운 것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더없이 행복한 일입니다.

그 벅찬 감정이 인생에 희열을 안겨주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꿈의 성질이 어떤 것이든 인간은 꿈을 꾸는 한 아름답습니다. 꿈은 평범한 현악기처럼 아름다운 음률을 내기 위해 삶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작은 것까지 모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욕망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시작과 끝을 되풀이하며 종착역에 이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의 끝자락을 지날 때도 험악한 바위틈에 피어오른 한 송이 꽃을 볼 수 있음이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웠던 곳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이 마냥 푸근해집니다.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리운 곳과 보고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썰물과 밀물의 때가 서로 교차합니다. 절망의 풍정 속에서도 희망은 기다림으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홍은 생각 중에서 - (문의 011-342-5834)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16

복지관 2번째 이야기

가산 저수지의 안개가 반기우고 그곳을 지나니 큰 트럭이 시간과 관계없이 천천히 가고 있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조금 더 늦게 도착한 곳이 복지관이다.

웃음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준다. 웃음이라는 보약을 먹고 아침부터 웃어 보자. 매일 아침을 웃음의 보약을 먹는 기분으로 생활하게 된다면 저절로 웃음 짓는 일이 많아 질 것이다.

상상을 하며 보약을 먹자고 하니 정말인양 잘도 먹고 웃어 준다. 자신의 이름을 대며 큰 소리로 이름을 대라고 하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만 그런 모습을 이겨내면 어떠한 자리에 가도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맨 앞에 앉아서 어찌나 잘 웃고 계시는 모현의 웃음 천사님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시면서 아쉬움을 남겨 주고 가시는 길목에서 손 꼭 잡아 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는 장애우들의 목소리도 점점 거늘거늘 느껴지고 어르신들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신바람 건강 웃음 체조는 웃음 치료와 체조 즉 쉽게 할 수

있는 율동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다. 실버 레크레이션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어느 장소에서든 쉽게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웃음과 레크레이션을 함께 하거나 웃음과 체조 또한 웃음과 요가를 함께 하는 것이 많다. 웃음이 그만큼 모든 이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나 리더들도 웃음을 함께 하거나 유머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아침을 웃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의 능력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굳어진 얼굴을 펴고 내니 봉우리 진 꽃이 만개한 효과를 보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위보다는 추운 계절이 가는 길목이다. 조금 더 활짝 핀 모습으로 웃음도 함께 하면 그 열기로 웃음 넘치는 세상은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웃음꽃 한아름 안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는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018-222-1790

사망자 전년 대비 7명(7.45%) 감소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자간담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12월8일 오전11시 한국산업안전공단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유재삼 원장은 “올 한 해 동안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안전사고 예방은 언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

요하다”며 “내년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은 정기적인 언론기관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고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로 사망자는 전년 대비 7명(7.4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은 12월8일 오전11시 한국산업안전공단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1월 30일 ~ 12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2008.11.30 포천신문 제432호 발행

2008.12.10 포천신문 제433호 발행

2008.12.20 포천신문 제434호 발행예정

취재기자 모집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